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 제3권 2호 (2015. 8) pp. 31~39
Korean Journal of Clinical Dental Hygiene, Vol. 3 Iss. 2 (Aug. 2015)

대학생들의 영양지식, 식습관과 구강보건지식과의 연관성

강민경, 김숙향*
한서대학교 치위생학과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of Nutrition and Oral Health, an Attitude to Diet on University Students

Min-Kyung Kang, Sook-Hyang K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anseo University, 356-706, 46 Hanseo 1-ro, Haemi-myun, Seosan-si, Chungcheongnam-do,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of nutrition and oral health, an attitude to diet on university students. The subjects were 135 university students. 123 Data were collected through mobile survey from June 15 to August 15 2014.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Statistics 21.0 Program. The average nutrition score on the entire subjects was 13.75 point but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observed in gender, major, academic qualification, a type of residence and awareness of own oral health status ($p>0.05$). The average on dietary attitude was 11.58 and oral health knowledge was 7.48 respectively.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major, academic qualification, a type of residence and awareness of own oral health status ($p>0.05$). The nutrition score showed a signig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oral health knowledge ($p<0.05$). The nutrition score showed a signigicant correlation with oral health knowledge. However It need to have a further study to prove a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of nutrition and oral health, an attitude to diet.

Key words : Dietary attitude, Nutrition knowledge, Oral health knowledge, University students
색 인 : 구강보건지식, 대학생, 식습관, 영양지식

교신저자: 김숙향
우 356-706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한서대학교 치위생학과
Tel: (041) 660-1571 Fax: (041) 688-1571 E-mail: sookim@hanseo.ac.kr
투고일: 2015. 07. 13. 심사일: 2015. 07. 20. 게재확정일: 2015. 08. 07.

1. 서 론

규칙적인 식사란 신체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상적인 활력을 유지시켜 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고,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있어 영양상의 위험이 크다. 영양지식과 식습관은 신체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준다(1).

영양지식과 식습관은 구강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실제로 잘못된 식습관과 영양행동은 여러 가지 구강질환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올바른 영양지식 및 식습관은 구강건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4), 성인 남녀는 건강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영양에 대한 태도, 영양지식, 식습관이 양호하다고 제시하였다(5). 위의 여러 연구에서와 같이 영양지식 및 식습관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잘못된 영양지식이나 식습관은 정제된 가공식품의 섭취 증가 등 식생활의 변화를 초래하여 치아우식증과 같은 구강질환을 증가시킨다(6). 따라서 치아우식증과 같은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고 올바른 영양지식과 식습관을 습득하여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실천을 도모해야한다. 그러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있어 구강보건지식과의 연관성에 관하여 연구된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양지식 및 식습관이 구강보건지식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구강관리 교육 시 영양교육을 포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영양지식을 분석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식습관을 분석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 지식을 분석한다.

4) 대상자의 영양지식, 식습관, 구강보건지식 수준을 분석한다.

5) 대상자의 영양지식, 식습관 및 구강보건지식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4년 6월15일부터 2014년 8월15일까지 두 달간 모바일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부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 하였으며 바로 결과를 회수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125명중 연구에 동의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12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로는 구조화된 모바일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자들로 하여금 자기기입

하도록 하였고 설문지의 내용은 영양지식 20문항, 식습관 7문항 구강보건지식 10문항, 일반사항 6문항으로 총 43문항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영양지식은 각 항목에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평가는 맞는 내용에 답한 경우 1점씩 부여하여 총 20점 만점으로 하였고 식습관은 각 문항 당 1~3점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올바른 식습관을 하는 것으로 보고 총 21점 만점으로 하였다. 구강보건지식은 영양지식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총 10점 만점으로 하였다.

2.3. 자료분석

통계분석 방법으로 자료의 처리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였다. 세부적인 통계 처리 방법으로는 인구학적 특성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식습관과 영양지식 및 구강보건 지식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차이는 t-test, ONE WAY ANOVA로 비교하였다. 그리고 영양지식, 구강보건지식 및 식습관이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Pearson's Correlation 분석을 하였으며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는 〈표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분류	빈도(N)	퍼센트(%)
성별	남	56	45.5
	여	67	54.5
전공	보건계열	25	20.2
	이공계열	38	30.6
	인문사회계열	41	33.1
	예체능계열	19	15.3
주거지형태	자취	33	26.6
	하숙	2	1.6
	기숙사	20	16.1
	통학	60	48.4
	기타	8	6.5
성적	상	18	14.5
	중	89	71.8
	하	16	12.9
자가구강진단	매우좋다	39	31.5
	보통이다	63	50.8
	매우나쁘다	21	16.9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가 45.5%(56명), 여자가 54.5%(67명)으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었고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조사임으로 연령은 본 조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표에서 제외되었다. 전공에 대한 응답자는 인문사회계열이 33.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이공계열이 30.6%(38명)으로 나타났으며 보건계열이 20.2%(25명), 예체능계열이 15.3%(19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거지 형태에 있어서는 통학 48.4%(60명), 자취 26.6%(33명), 기숙사 16.1%(20명), 기타 6.5%(8명), 하숙 1.6%(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에 따라서는 상, 중, 하로 분류하였을 때 각각 상 14.5%(18명), 중 71.8%(89명), 하 12.9%(16명)로 중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상과 하는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자가구강진단에서는 매우 좋다 31.5%(39명), 보통이다 50.8%(63명), 매우 나쁘다 16.9%(21명)으로 보통이다가 가장 많았고 매우 나쁘다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3.2. 식습관, 영양지식, 구강보건지식 정도

응답자의 식습관, 영양지식, 구강보건지식 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2〉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자들의 식습관을 점수화 하여 나타났을 때 평균점수는 11.58점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5점으로 나타났고 최대값은 20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영양지식 정도의 측정결과 평균점수는 13.75점으로 나타났으며 식습관과 마찬가지로 점수화 하였을 때 최소 0점, 최대 19점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구강보건지식정도의 측정결과 평균 점수는 7.48점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3점, 최대값은 10점으로 나타났다.

3.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식습관과 영양지식 및 구강보건지식

〈표 3〉은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식습관과 영양지식 및 구강보건지식에 대하여 평균을 비교하고 통계학적 유의성 결과를 나타내었다.

성별에 따라 남자와 여자 각각 56명, 67명으로 식습관에 대해서는 평균 11.78±2.58, 11.46±2.87이었으며 p〉0.05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양지식에서는 평균 13.46±2.98, 14.00±2.56로 나타났으며 이도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마지막 구강보건지식에서도 각각 평균 7.43±2.02, 7.54±1.17이었으며, 검정결과 p〉0.05로 나타나 성별과도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였다.

전공에 따라서는 보건계열 25명, 이공계열 38명, 인문사회계열 41명, 예체능계열 19명이 응답하

〈표 2〉 식습관, 영양지식, 구강보건지식 정도

특성	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표준편차
식습관	123	5.00	20.00	11.58±2.73
영양지식	123	0	19.00	13.75±2.76
구강보건지식	123	3.00	10.00	7.48±1.85

식습관=21점 만점, 영양지식=20점 만점, 구강보건지식=10점 만점.

였는데 식습관에서는 차례대로 평균 11.92±2.63, 11.26±2.80, 11.51±2.55, 11.59±2.73로 나타났으며 p>0.05로 유의하지 않았음을 보였다. 영양지식에서는 보건계열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 나머지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에서는 비슷한 정답률을 나타났다(p>0.05). 구강보건 지식에 관하여서도 역시 보건계열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나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p>0.05).

성적에서는 중위권의 학생들이 8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습관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이 영양지식과 구강보건지식은 중위권학생들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하위권 학생들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각각 p>0.05로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냈다.

주거형태는 통학이 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습관에 대해서 기숙사가 영양지식에서는 하숙이, 구강보건지식에서는 자취가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각 주거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p>0.05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가 구강진단에 따른 식습관은 '좋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영양지식에서도 '좋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구강보건지식으로는 보통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 식습관과 영양지식에 따른 점수 양상이 차이를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p>0.05).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식습관과 영양지식 및 구강보건지식

특성		명	식습관 M±SD	P	영양지식 M±SD	P	구강보건지식 M±SD	P
성별	남자	56	11.78±2.58	0.588	13.46±2.98	0.286	7.43±2.02	0.747
	여자	67	11.46±2.87		14.00±2.56		7.54±1.17	
전공	보건	25	11.92±2.63	0.742	14.64±2.52	0.313	8.32±1.07	0.074
	이공	38	11.26±2.80		13.68±3.11		7.24±1.99	
	인문사회	41	11.51±2.55		13.54±2.47		7.41±1.83	
	예체능	19	11.59±2.73		13.21±2.90		7.05±2017	
성적	상	18	12.22±2.53	0.512	13.61±1.88	0.263	6.94±2.04	0.398
	중	89	11.53±2.61		13.97±2.85		7.60±1.84	
	하	16	11.19±3.60		12.75±3.04		7.50±1.63	
주거형태	자취	33	10.42±2.63	0.072	14.00±2.51	0.864	8.18±1.76	0.077
	하숙	2	11.50±3.54		14.50±6.36		8.00±1.41	
	기숙사	20	12.05±2.70		14.10±2.63		7.50±1.93	
	통학	60	11.95±2.53		13.55±2.80		7.05±1.82	
	기타	8	12.50±3.70		13.25±3.49		7.75±1.75	
자가구강진단	좋다	39	12.20±2.52	0.222	14.38±2.90	0.129	7.46±1.94	0.593
	보통	63	11.35±2.90		13.63±2.90		7.62±1.86	
	나쁘다	21	11.14±2.54		12.90±2.34		7.14±1.65	

The data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OVA.

3.4. 영양지식, 구강보건지식 및 식습관 간에 상관관계

〈표4〉는 영양지식, 구강보건지식 및 식습관에 대하여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이다. 대상자들의 영양지식, 식습관 및 구강보건지식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영양지식과 구강보건지식과의 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가 0.450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1$).

〈표 4〉 영양지식, 구강보건지식 및 식습관 간에 상관관계

특성	영양지식	구강보건지식	식습관
영양지식	1		
구강보건지식	.450**	1	
식습관	.106	.052	1

The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p<0.01

4. 고 안

구강건강은 상병에 이환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구강 조직 및 장기 상태를 의미하며 정상적인 음식물 섭취를 통한 신체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7-8). 근래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서구화에 따른 급속한 식생활 양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신체적 발달 상태는 개선되었더라도 구강 상태는 오히려 나빠져 가고 있다(9). 치아우식증은 우리나라 성인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로 성인에게 있어 3명중 1명은 우식 영구치를 보유하고 있다(10). 실제로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은 8세에서 30.4%, 12세에서 57.3%, 15세에서 71.1%로 연령이 증가 할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1). 그러므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구강병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조기 예방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조기 예방의 일환으로는 식이조절을 들 수 있는데 이(4)의 연구에 따르면 영양지식과 식습관은 구강실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영양지식과 식습관 및 구강보건지식의 수준을 확인하고 그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상자는 일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123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영양지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13.75점으로 김(12)의 13.15점 강과 이(13)의 12.04점, 이(4)의 8.01점, 이(14)의 6.23점 보다는 높았다. '철분은 모든 빈혈과 관련 있는 영양소이다'는 30.9%의 대상자들만이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김(12)의 21.0%보다 약간 높았다. '칼슘의 섭취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 뼈가 약해진다'는 65.0%가 정답을 알고 있었으며 김(12)의 11.0%와는 크게 차이를 보였다. 이는 김(12)의 연구는 일반 성인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것이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알아본 것이므로 그 차이가 있다 하겠다. 또한 '지방은 비만의 원인이 되므로 섭취할 필요가 없다'에 대해서는 95.1%의

높은 정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비만과 관련된 영양 정보가 많은 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으며 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히 습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영양지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영양지식은 성별, 학과, 성적, 주거형태, 자가 구강진단에 있어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보였으며($p>0.05$), 김(12)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있어 여자가 남자 보다 유의차 있게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식습관은 대부분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우유, 채소, 과일 섭취에서는 한국인 1일 영양권장량에서 제시한 기준치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1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습관 빈도를 알아본 결과 남자는 평균 11.78점, 여자는 11.46점으로 성별에 따라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자취가 10.42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기숙사가 12.0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스로 매 끼니를 해결하는 자취생들에게 골고루 된 영양섭취를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끼니를 거르기 쉬우며 그에 반해 기숙사생들에게는 자취에 비하여 정해진 식단이 매일 매일 제공되기 때문에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구강보건지식 수준은 전체 7.48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4.8점 이었으며 김(12)의 65.7보다는 약간 높았고, 문(16)의 연구에는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1.63점 더 높게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았고 보건계열이 다른 계열에 학과에 비해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구강보건지식 수준이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보건계열 학생이 교과과정 중에 건강과 질병 및 치료와 예방법 등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16). '당분이 많은 음식은 충치 발생을 증가 시킨다'는 91.9%의 높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충치(치아우식증)는 이를 잘 닦지 않아서 생긴다'는 69.9%로 비교적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이는 3대 구강질환 중 하나인 치아우식증에 관하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치과 방문으로 그에 대한 지식 또한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반해 '틀니는 빼면 물에 담구어 놓아야 한다'는 56.9%의 대상자들만이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틀니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틀니 보관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영양지식과 식습관 및 구강보건지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영양지식은 구강보건지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영양지식이 높을수록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영양지식과 식습관은 0.106의 상관성을 보였고 식습관과 구강보건지식은 0.052의 상관성을 보였으나 두 결과 모두 유의성을 가지지는 못하였다. 구강보건 지식 습득은 구강보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구강보건 교육은 구강보건관련 행위와 연관되어 구강 상태를 양호하게 증진시킬 수 있게 한다(17). 그러나 현재까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구강보건교육이 효과적

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단편적으로 알고 있거나 이를 습관화하여 실천함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였다(16). 더욱이 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고민이 크고(18)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취업준비로 불균형한 영양 섭취를 하고 구강건강을 관리함에 있어 소홀해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양지도를 포함한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보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일부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123명을 대상으로 영양지식과 식습관 및 구강보건지식의 수준을 확인하고 그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식습관은 전체 11.58점으로 영양지식과 마찬가지로 성별, 학과, 성적, 주거형태, 자가 구강진단에 있어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보였으며 그중 기숙사가 12.05점으로 식습관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영양지식 점수는 전체 13.75점으로 성별, 학과, 성적, 주거형태, 자가 구강진단에 있어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보였으며 그중 보건계열 학생이 14.64점으로 영양지식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구강보건지식은 전체 7.48점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보였으며 영양지식과 마찬가지로 보건계열 학생이 8.32점으로 구강보건지식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들의 영양지식, 식습관 및 구강보건지식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영양지식은 구강보건지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세부항목에 대한 대학생들의 영양지식, 식습관, 구강보건지식과의 연관성은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으나 영양지식과 구강보건지식에 사이에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향후 더 많은 연구대상자의 확보와 전국적인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대학생들의 영양지식, 식습관과 구강보건지식간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남미정, 엄동춘. 대학생의 식사규칙성과 구강건강지식 및 구강건강 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12(2):788-794.
2. 김영진. 학동기 아동의 식습관과 치아우식율과 관련성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1990.
3. 김영훈. Dental Caries의 역학적 연구. 최신의학 1965;8(11):1199-1204.

4. 이영애. 영양지식 및 식습관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대구: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1989.
5. 노미정. 성인 남성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영양지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1987.
6. ZITA AC et al. Dietary Habits and The caries Experience in 200 children, J Dent Res 1959; 38(5):860-865.
7. 김종배, 최유진, 문혁수, 김진범, 김동기, 이흥수외 7인. 공중구강보건학. 제4판. 서울:고문사;2003:1-8.
8. 김광덕, 전진호. 초등학생의 Dental IQ 수준과 구강보건 관리실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03;20(2): 95-112.
9. 김숙진. 초등학생의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 태도, 행동과 구강건강상태간의 관계[석사학위논문]. 부산: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2003.
10. 질병관리본부. 2013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통계. 청주: 질병관리본부;2014:32.
11. 보건복지부. 2012 국민 구강건강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2013:71.
12. 김진경. 성인의 영양지식 및 식습관이 구강보건행동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서울: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대학원;2004.
13. 강부월, 이선미. 치위생과 학생의 영양지식과 식행동에 관한 연구. 동남보건대학 2001;19(2):243-250.
14. 이재원. 초등학교 아동들의 영양지식, 식습관 및 건강실태 조사[석사학위논문].서울: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1997.
15. 박광균, 김영진, 박영민, 정원윤. 치아영양학 제2판. 서울:대한나래출판사;2003:2-16.
16. 문소정, 노희진. 치위생관리과정과 인간욕구이론에 근거한 일부 대학생의 구강건강 관련 미충족 욕구 분석. 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 2014;2(2):21-29.
17. 이지원 등. 일부 충청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의 유아 구강보건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 2013;1(1):23-32.
18. 문소정 등. 치위생학과 학생과 인문 자연계열 학생의 취업 준비 실태와 인식도 조사. 한국임상치위생학회지 2014;2(2):43-51.